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2. 6. 29.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작성과	투자유치기획과
담당	과장 정경원, 정주지원팀장 김종철, 담당 신환희 (032-453-7355)

그동안 같고 닮은 한국어 실력, 마음껏 뽐냈어요 인천경제청, '2022 IFEZ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본선 대회' 개최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8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시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'2022년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한국어 말하기 본선 대회'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.
- 한국 문화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치열한 예선을 거쳐 미국, 일본 등 9개국의 외국인 12명이 본선에 올라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. 이들은 '자유 주제'로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고 느낀 다양한 것에 대해 5분씩 발표했다.
- 심사위원들은 표현력, 내용 구성, 유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, △대상에 '나의 한국 해방일지'라는 주제로 발표한 쑨징이(중국), △우수상에 뗏똥따수(미얀마), 툴레무세바 카리나(러시아)씨 등 2명, △장려상에 팜티 응아(베트남), 누마타 이쿠호(일본), 세키 히카리(일본) 씨 등 3명을 각각 선정했다.
- 김태권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"한국어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마음껏 한국어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IFEZ에서 마련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"며 "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문화와 한글에 대해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"고 밝혔다.